

2018년 2학기 응용계량경제학연구 (경제학에서의 실증분석 사례)

-류근관

1. 이 과목 또는 강좌를 수강하데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?		
(1) 필수과목이기에	1(8%)	12(100%)
(2) 듣고 싶은 다른 과목이 선수과목이어서	0(0%)	
(3) 지식함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	8(67%)	
(4)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	0(0%)	
(5) 학점을 잘 준다고 해서	0(0%)	
(6) 명강의로 소문나서	3(25%)	
(7) 재수강	0(0%)	
2. 출석을 어느 정도 하였습니까?		
(1) 1/4 미만	0(0%)	11(100%)
(2) 1/4 이상 2/4 미만	0(0%)	
(3) 2/4 이상 3/4 미만	0(0%)	
(4) 3/4 이상 그러나 몇 차례 결석	5(45%)	
(5) 거의 100%(거의 매번 출석)	6(55%)	
3.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얼마나 공부하였습니까? ((1)-(3)은 수업 출석률이 낮은 경우)		
(1) 거의 공부하지 않았다	0(0%)	11(100%)
(2) 시험 때만 하였다.	1(9%)	
(3) 과제와 시험이 있을 때만 하였다.	4(36%)	
(4) 대체로 수업을 열심히 들었지만 예습복습은 거의 하지 않았다.	6(55%)	
(5) 수업을 열심히 듣고 예습복습을 비교적 철저히 하였다.	0(0%)	
4. 강의의 내용 및 진행은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바와 같았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11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그저 그러했다.	1(9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6(55%)	
(5) 매우 그러했다.	4(36%)	
5. 사용된 교재, 참고문헌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11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그저 그러했다.	1(9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7(64%)	
(5) 매우 그러했다.	3(27%)	
6. 과제 및 시험은 강의 내용의 이해와 심화에 도움이 되었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11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그저 그러했다.	1(9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8(73%)	
(5) 매우 그러했다.	2(18%)	
7. 강의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11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그저 그러했다.	1(9%)	

(4) 대체로 그러했다.	7(64%)	
(5) 매우 그러했다.	3(27%)	
8. 교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(질문, 면담, 게시판, e-mail)를 제공받았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11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그저 그러했다.	2(18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6(55%)	
(5) 매우 그러했다.	3(27%)	
9. 과제의 분량은 적절했습니까?		
(1) 너무 적었다	0(0%)	11(100%)
(2) 적은 편이었다.	0(0%)	
(3) 적절했다.	5(45%)	
(4) 많지만 할말했다.	5(45%)	
(5) 너무 많았다.	1(9%)	
10. 강의 내용의 난이도와 본인의 이해도에 관한 질문입니다.		
(1) 너무 쉬웠다.	0(0%)	11(100%)
(2) 쉬운 편이었다.	0(0%)	
(3) 적절했다.	3(27%)	
(4) 어렵지만 할만했다.	7(64%)	
(5) 너무 어려웠다.	1(9%)	
11. 교수님의 강의속도와 강의내용의 분량에 관한 질문입니다.		
(1) 매우 느슨했다.	0(0%)	11(100%)
(2) 느슨한 편이었다.	0(0%)	
(3) 적절했다.	4(36%)	
(4) 딱딱하지만 할만했다.	5(45%)	
(5) 너무 딱딱했다.	2(18%)	
12. 이 과목의 수강을 다른 친구 및 후배들에게 추천하겠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11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잘 모르겠다.	0(0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8(73%)	
(5) 매우 그러했다.	3(27%)	
13. 실습 또는 연습시간(TA session)은 유용했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3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잘 모르겠다.	2(67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1(33%)	
(5) 매우 그러했다.	0(0%)	
14. 담당교수는 유능했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3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잘 모르겠다.	2(67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1(33%)	
(5) 매우 그러했다.	0(0%)	
전체		

기타 건의사항

- 교수님께서 다양한 놓치고 있는 계량경제 문제에 대해 브리핑해주십니다 FE/RE의 차이, Control variable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점, 쓸데없는 테스트보다 연구의 의미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점, 머신러닝의 현주소와 실제 사용예시 등을 배웠고,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
